

“현빈과 텐션 점점 무르익어”...사생활 변화엔 “말씀 못 드려”

정우성, 현빈 주연 디즈니+ ‘메이드 인 코리아’ 24일 첫 공개...70년대 욕망 둘러싼 대립

“영화 ‘하얼빈’에서 잠깐 만나긴 했지만 현빈과 이렇게 길게 호흡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했는데, 점점 텐션이 무르익어가는 것이 보였죠.” 배우 정우성은 지난 15일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발표회에서 현빈과 투톱 주연으로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진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정우성은 현빈이 주연한 영화 ‘하얼빈’에 특별출연해 서로 마주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우성은 “아무래도 새로운 캐릭터로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현빈이 백기태라는 인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현장에 나타날지 관찰하는 재미도 컸다. 시즌1에선 관찰하는 재미가 있었다면, 시즌2를 촬영하는 지금은 호흡이 완성돼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현빈 역시 “제 나름대로 백기태를 분석해서 현장에 갔고 정우성 선배님도 마찬가지로였는데, 각자 시나리오를 보면서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선배님이)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저도 그에 대한 리액션이 달라지다 보니 촬영하면서 작품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이 자리에서 득남과 혼인신고 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모델 문기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고, 이후 교제하던




정우성이 지난 15일 열린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과 올해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작년 말 청룡영화상 시상식 무대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

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질문해주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작품을 위해 여러 배우가 함께 모인 자리”라며 “제 사적인 소회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 못 드리는 지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현빈은 자신이 연기한 백기태가 지금껏 맡아 온 캐릭터 중 가장 욕망이 강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보고 백기태의 저돌적인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기태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결핍, 부족, 불안 때문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 저변의 많은 생각이 욕망으로 점점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작품은 현빈의 첫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진출작이기도 하다. 그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기대되고 설레기도 한다”고 말했다. 영화 ‘하얼빈’에 이어 우민호 감독과 재회한 것에 대해선 “‘하얼빈’을 우민호 감독과 함께하면서 신뢰가 많이 있었다”며 “감독님은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배우로서 그런 감독님과 작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했다.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마약왕’, ‘하얼빈’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첫 시리즈 연출에 도전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8일 천문역연 (062)673-2427
子	쥐띠: 가고 오는 것이 내 길에 따라 결정이 된다. 36년생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겸양하니 복이로다. 48년생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하면 문제없다. 60년생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복도 생긴다. 72년생 노부모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것도 호다. 84년생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96년생 온전하게 조심하고 남의 말은 귀로 흘려라. 08년생 고운 말 착한 행동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행운의 수: 6,9 행운의 색: 자주색	
丑	소띠: 자물쇠를 열었으니 창고 문을 활짝 열어라. 37년생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나 그 또한 내 복이다. 49년생 아무리 힘든 지경이라 해도 오직 원력을 고수하라. 61년생 멀리서 들리지 않게 돌보는 것이 배려다. 73년생 우선은 양보해도 결국은 내 뜻이 받아들여진다. 85년생 남들과 뜻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만이 아니다. 97년생 탐할러온 곡식이 더욱 소중하고 값진 법이다. 09년생 서둘러 일을 꼬여 오히려 거꾸로 늦어진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빨간색	
寅	호랑이띠: 가족과 친구, 친지 문제로 머리가 몹시 복잡하다. 38년생 운이란 내 노력보다 발전의 크기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50년생 겉만 화려하면 무었하나 속은 가짜를 보인다. 62년생 꼼꼼하게 살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74년생 나만 살 지식이 아니라 모두가 살 지혜가 필요하다. 86년생 해바라기 따로 없는 인연을 만나지만 주위의 시선이 만만치 않았다. 98년생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10년생 순간을 모면하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노란색	
卯	토끼띠: 독불장군은 없으니 괜히 체면 차리지 마라. 39년생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 만사가 대길하다. 51년생 적과 미워하는 사람만 만들지 않으면 편안하다. 63년생 아랫사람이 희소식을 전하니 내가 더 기쁘다. 75년생 하나를 알아도 다섯 열을 얻는 운이니 길운이다. 87년생 겉을 보면 백배요, 속을 보면 백승이 분명하다. 99년생 내가 땀땀하던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11년생 묻어간다는 느낌으로 모든 걸 접해야 한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산호색	
辰	용띠: 뒷사람 문제로 정신이 번쩍들 소식 듣겠다. 40년생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이나 현실이 우선하라. 52년생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는 잊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멀리서 들리지 않게 돌보는 것이 배려다. 76년생 지혜로 대인관계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밀지지만 알아도 잘한 것이니 서운해 말라. 00년생 남자는 여자가 문제고 여자는 돈이 문제다. 12년생 해답은 아니더라도 힌트를 주는 사람이 많다. 행운의 수: 0,7 행운의 색: 주황색	
巳	뱀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진 내 것은 없다. 41년생 지피지기와 했으니 자신부터 확실하게 할라. 53년생 차려 지키는 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 65년생 나만 위한 연행에서 모두를 연행으로 바꿔 놓는다. 77년생 할 일에 즐거움을 스스로 만드는 단계다. 89년생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 그 또한 내가 할 일이다. 91년생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니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고 상의하라.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파란색	
午	말띠: 믿고 의지하며 함께할 사람 있다는 건 행복이다. 42년생 안에서 나 밖에서나 만사 조심해야 탈이 없겠다. 54년생 가까스로 손에 들어온 재물을 뺏길 수 있다. 66년생 나를 살피우는 것도 스스로이니 자중자해야라. 78년생 이익보다 소중한 가치를 좇는 것이 필요하다. 90년생 이성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02년생 살길을 찾지 않고 즐거움 일만 찾아선 안 된다.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노란색	
未	양띠: 일이든 건강이든 밤심이 금물임을 꼭 명심하라. 43년생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눈팔지 마라. 55년생 멀리 움직이지 마라. 돌아오는 길이 막혔다. 67년생 더 조심하고 경계하며 헛된 발걸음을 말라. 79년생 실력보다 확실한 것은 없으니 불철주야 노력이 필요하다. 91년생 보기엔 비참한 점만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다. 03년생 마음이 통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흰색	
申	원숭이띠: 자신을 옹기 세워야 남들도 행길 수 있다. 44년생 너무 요리조리 재다 보면 정작 기회는 끝난다. 56년생 아랫물이 뒷물을 밀어내는 운이니 유념하라. 68년생 만사가 아귀가 맞아야 하듯이 나 또한 같다. 80년생 아량이 바다 같지는 않아도 강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92년생 운이 좋을 때는 별로 하는 일 없어도 잘된다. 04년생 한 번에 바꾸지 말고 하나씩 확인 후 바꾸어라. 행운의 수: 0,8 행운의 색: 주황색	
酉	닭띠: 양손에 띄우고 하나를 고르는 운이다. 45년생 복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57년생 꼭 필요한 만큼만 바라만 문제 될 것 없다. 69년생 오랜 사람과 오랜 기억이 다시 새록새롭다. 81년생 한꺼번에 계단을 오를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단계를 지켜야 한다. 93년생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맘부터 활짝 열라. 05년생 소통이란 꼭 의사소통만 있는 게 아니니 명심하라. 행운의 수: 3,8 행운의 색: 보라색	
戌	개띠: 바뀌도 답이 없다면 그대로를 더욱 챙겨라. 46년생 모든 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단단히 준비해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 58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볼 수 없겠다. 70년생 무엇보다 마음이 가는 그대로 행해야 무탈하다. 82년생 철두철미하다고 좋은 것만 아님을 명심하라. 94년생 남보다 몇 배 더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이다. 06년생 나를 돕고 함께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시기이다. 행운의 수: 5,9 행운의 색: 장미색	
亥	돼지띠: 뒤로 넘어져서 고개지고 발등 찍히는 난국이다. 35년생 물욕이 정보다 앞서면 관계만 소원해진다. 47년생 머물면 머물면 하지만, 나서면 열을 쥐야 할 것이다. 59년생 내 복이 하나라면 하나만 정확하게 갖추어라. 71년생 자리에 걸맞게 행동하려면 허리가 된다. 83년생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흐르는 그대로 나를 맡겨라. 95년생 오히려 버티는 건 현명이지 오히려 마음을 열라. 07년생 가까운 사람이 제할 마음 때도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수: 0,4 행운의 색: 살구색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거우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 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용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현장인터뷰 이사람 < '전국 수석 수능 만점' 서석고 최창우 학생 >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전국 수석 만점을 기록한
광주 서석고 최창우 학생과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공부 비법과 학생 최창우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방송 : 12월 15일(월)~19일(금) 12:00~12:30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의 맛과 멋의 현장.
이번 화는 광주 동국의 개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초동의 우아한 개장을 찾아가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방송 : 12월 16일(화)~19일(금) 20:20~20:50

SO네트워크 < '외 정태보고' 전남 순천 편 >
방송인 오정태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 공동제작 '짚' 현지 탐방프로그램.
국가 정원으로, 생태도시로 '뜨고 있는 도시' 순천을 찾아가.
방송 : 12월 18일(목)~19일(금) 13:00~13:50